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파고 어느 정도인가?

# 수입 급증하고 국내생산 위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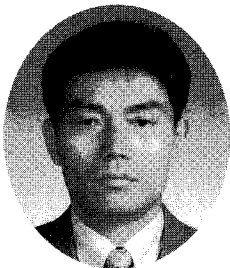
농업부문 제동 바람직하지 않아, 별도협상 필요  
민감품목 등 대책수립, 관련자 의견 수렴해야

우리 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2월 2일과 3일에는 칠레에서 양국 실무자 회의가 열렸으며 금년 10월까지 실무작업과 협상을 거쳐 연말에는 최종 협정문에 서명한 뒤 2000년 7월부터 협정을 발효키로 일정을 확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란 대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상호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 무

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상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전에 국내생산자가 공급하던 것을 가격이 더 싼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어 교역이 증가하게 되는 무역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협정 체결 이전에 가격이 싼 제3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협정 이후 협정상대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무역전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교역 구조도 협정의 효



어 명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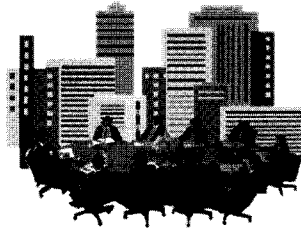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부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간 교역 구조가 상호보완적일 경우 한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산업의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생산물을 재수출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원료는 수출하고 생산물은 수입하게 되므로 협정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커질 것이다. 반면에 산업구조가 유사할 경우 동일 또는 대체관계의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산업이 위축되거나 또는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시간과 투자 등 "조정비용"을 치른 후 효율화를 통해 산업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내 무역'과 틈새시장 공략에 의해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이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 비교우위에 밀려 생산이 위축되는 분야는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을 수출 산업에 투입하기 위한 '조정비용'의 부담 대책이 마련되어야 협정 체결의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협정참여결정 '實利'원칙으로 이루어져야

세계 전체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WTO에 통보된 전 세계 자유

## 시사포커스



무역협정 수는 162개로서 1980년대에는 11개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8년간 85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을 확대하거나 협정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은 칠레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협상을 진행중이며 EU와 연계하여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 (TAFTA)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간의 미주자유무역협정 (FTAA)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아무런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상과 교역이란 결국 장사 (business)이고 협상은 흥정을 의미하므로 통상과 관련된 일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실리 (實利)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 상대국의 경제구조와 전망, 분야별 경쟁력 비교 분석 및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 등이 협정 참여 여부 결정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교역조건 완화로 수출·입 활성화 예상

칠레는 1997년 현재 인구 약 1천5백만명에 국토면적은 76만 km<sup>2</sup>이고 1인당 소득이 5천3백 달러, 수출액 1백70억 달러, 수입액 1백90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남미 국가중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이며 1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구리를 비롯한 광산물과 수산물, 신선 과채류나 원목 같은 농산물 등 주로 1차 산업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기계, 전자, 섬유 등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구리, 목재, 철강 등을 수입하여 전체적으로는 분명하게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무역에 대해서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류 가운데 포도와 키위, 토마토와 사과, 배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약 2억5천만 달러 어치의 농림산물을 수입하여 칠

래의 수출총액인 40억 달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농업생산은 포도가 우리 나라의 4배인 1백64만톤, 토마토가 6배인 1백12만톤, 복숭아는 2배인 27만톤, 그리고 사과와 배는 비슷한 규모이나 생산비가 훨씬 저렴하다. 1996년 동물검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이 시작되었으며 1997년에는 포도와 사과 등의 대일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포도의 검역문제가 해결되어 1997년 1천9백만 달러의 포도를 수입하였고 키위의 검역문제가 해결되어 2백60만 달러 어치의 키위를 수입하였으며 올해에는 레몬과 쇠고기 검역 문제가 완화되어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생산·출하 주기달라도 과수농가 영향 커

이러한 상황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농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포도와 토마토 등 신선 과채류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도는 현행 48%의 관세하에서도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수입포도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부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포도농축액의 수입이 칠레산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사과도 48% 현행 관세에서 가격이 미국산보다 저렴하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배는 국내산과 품질의 차이가 나고 소비자 기호에도 맞지 않으나 현행 50% 관세하에서도 국내산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 가공용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복숭아와 키위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생산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로부터 관세 인하 요구 등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WTO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칠레와의 농산물 교역 규모가 작고 키위 등은 생산주기가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과거 수입량이 작은 것은 검역 문제와 고율의 관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검역문제가 해결되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및 출하주기에 차이가 있어도 과일 농축액 등 가공품 수입은 증가하여 국내 과일 재배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협정에 불참할 수는 없는 일이

다. 자국에 유리한 분야만 협정에 참여한다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원칙에 벗어나는 결과가 될 뿐이며 이미 국가 정책이 협정 체결로 결정된 마당에 농업부문이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민감한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과 멕시코간 농업 협정처럼 민감 품목을 점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AFTA는 품목별 민감 정도에 따라 “즉시 참여/5년/10년/15년” 등 4 단계로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림업부문의 협상은 별도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약 10여 개월 기간에 자유무역협정의 품목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협상 전략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품목별 피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목별 생산 농민, 농민단체, 그리고 유통업계 등 관련자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여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약정보